



구학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작은 구학포 서쪽 해안에 대형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 보행렬이 나타나는데 앞발자국의 길이와 폭은 60~70cm이고, 뒷발자국의 길이는 110~120cm, 폭은 90~100cm인 대형 발자국 화석으로 발가락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질공원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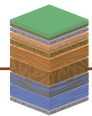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질관광과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입니다. 고성 공룡지질공원은 고성읍 등 10개 읍면이 공원구역(383.64km²)으로 구성된 지질공원입니다.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유산이 하나 혹은 여러개 모여있는 장소를 일컫는 용어로서 연구, 교육, 여행, 여가의 장소로 활용됩니다. 고성 공룡지질공원은 총 13개의 지질명소가 있습니다.

고성 공룡지질공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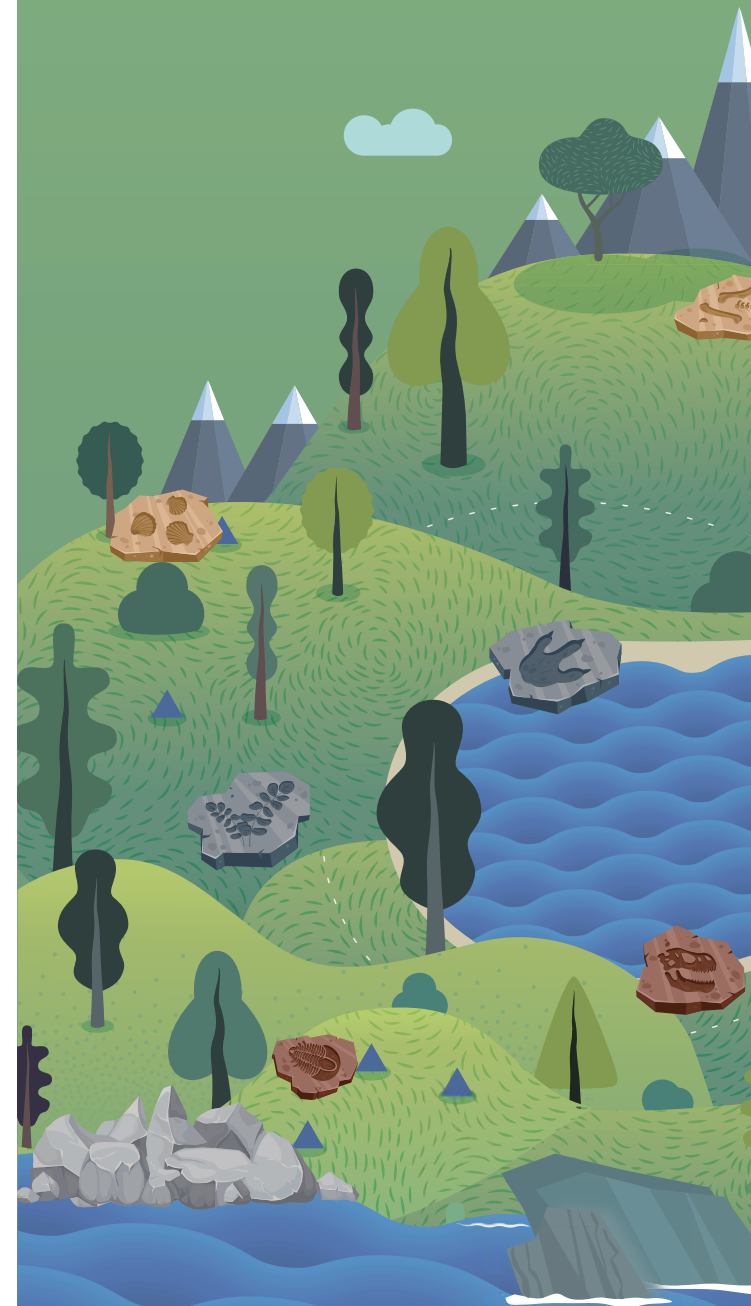
경상남도 고성군은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룡발자국이 발견된 곳입니다. 백악기의 퇴적암, 화산암 및 공룡 발자국 화석과 제4기에 형성된 지형으로 구성되어 백악기 한반도 지질학적 변화와 이에 따른 공룡의 생태변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질공원입니다.



상족암 권역 (2시간 30분, 5.8km)	> 호수퇴적층 > 상족암 >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 병풍바위 주상절리 > 동화어촌체험마을
당항포 권역 (2시간 30분, 10km)	> 당항리 공룡발자국 화석 > 진동층 퇴적구조 > 삼락리 공룡발자국 화석 > 해안절벽 > 마동호 국가습지보호구역
고성읍 권역 (2시간, 6.8km)	> 월평리 하천퇴적층 및 공룡알/거북알 화석산지 > 뜰어울린 이암편 > 수남 유수지 생태공원 > 고성박물관 > 송학동 고분
연화산 권역 (3시간, 7.8km)	> 옥천사 공룡발자국 화석 > 옥천사 불교 문화재 > 계승사 퇴적구조

고성공룡지질공원

우리나라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최초로 발견된 고성 공룡지질공원





병풍바위 주상절리

📍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산 3-1

높이 약 20m, 연장 1.2km 해안절벽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병풍바위 주상절리는 유문암 성분의 마그마가 퇴적층을 뚫고 들어와 빠르게 식어 사각형 또는 오각형의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병풍바위 주상절리의 해식 동굴인 쌍웅굴은 두 마리의 용이 살다가 승천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호수퇴적층(진동층)

📍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산 19 일원

후기 백악기 시기의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되었으며, 호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층리,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등의 퇴적구조가 전형적으로 발달하였고 논바닥이 갈라지듯 건열이 관찰됩니다. 이외에도 퇴적층의 단면에서는 석회질 단괴와 연은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는 중·고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하는 학습요소로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승사 퇴적구조

📍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 17-2 일원

천연기념물 제475호로 지정된 계승사 퇴적구조는 접촉변성작용(온펠스)을 받은 진동층의 퇴적암으로 구성되며 층리면에서 다양한 퇴적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cm 미만의 파장과 1cm 미만의 높이를 보이는 연은과 직경 1cm 미만의 우흔이 대표적인 퇴적구조로 관찰되며, 이외에도 약 70~90cm의 용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어 공룡의 서식지였던 고성의 당시 환경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242-2

어신아랫담 마을 입구 쪽 해안에 중형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 28개가 보행렬을 이루고 있으며,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이 거의 겹쳐 있어서 마치 이족보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소형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 34개(앞발자국 16개, 뒷발자국 18개)가 소규모(2×4m) 노두에 3.9m의 보행렬을 이루며 보존되어 있고 주변에는 조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 보행렬도 나타납니다.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32, 상족암 해안 일대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맥전포항에서 덕명항까지 이어지는 '상족암 공룡길'을 따라 약 3.5km구간에 걸쳐 다양한 크기의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공룡발자국 보행렬 화석을 비롯해 세계 최대의 새 발자국 화석들과 무척추동물의 흔적화석들을 탐방로를 따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쇄설성 암맥과 페퍼라이트

📍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393 인근

공룡 발자국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남동부는 화산활동과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의 진동에 의해 액상화가 발생하여 쇄설성 암맥이 형성되었고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마그마는 퇴적물을 뚫고 들어와 페퍼라이트라는 특이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공룡이 뛰어놀던 당시 혹은 직후에 화산활동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월평리 하천퇴적층 및 공룡알/거북알 화석산지

📍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산 279 일원

약 900m의 해안가를 따라 고성층에 해당하는 하천과 범람원 퇴적층에는 자색의 이암 및 사암으로 구성되었고 나무뿌리 흔적화석이 관찰됩니다. 범람원 퇴적층에서는 거북알 및 공룡알 파편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과거에 산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 화석들은 2006년에 모두 발굴되어서 현재는 고성공룡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삼락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9-5 주변

경상남도 기념물 제309호로 지정되었으며, 노출된 층리면에서는 총 1,421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180개는 발길이 30~40cm 크기의 조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인 Caririchnium에 속하며 81개의 발자국이 보행렬을 이루며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발길이 10cm 정도 크기의 용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 141개는 하나의 보행렬이 25.3m에 걸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상족암

📍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산 31

상족암 해안절벽은 높이가 20-30m로 끊임없이 밀어치는 파도가 암석을 깎아내고 뜯어내면서 경관이 수려한 해안절벽과 넓은 평지(파식대지)를 만들었습니다. 해안의 침식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동굴 안에는 선녀들이 목욕하던 곳이라 전해지는 선녀탕은 물웅덩이(포트홀)이 파도와 돌 부스스거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실바위 공룡·새발자국 화석산지와 이중 관입구조

📍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산 209-2

발길이 60cm인 용각류 공룡 보행렬 발자국 화석 사이로 발길이 15cm의 수각류 공룡 보행렬 발자국 및 새발자국 화석을 좁은 지역에서 함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의 암맥에는 돌맹이(자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백악기 한반도의 지구조적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항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50-1

당항포관광지의 공룡 발자국 탐방로를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용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조각류 공룡과 수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의 경우 뒷발자국의 크기가 110cm에 달합니다. 일부 발자국은 보호각이 제작되어 있어 상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마동호 국가습지보호지역

📍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두호리, 거류면 거산리 일원

마동호는 2022년 2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공습지입니다. 현재는 조류 집단도래지이며 황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5종,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18종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입니다.

